



직원이 최고의 자산이다! 직원들을 위한 투자계획 마련하고 지금 당장 이행하라! 투쟁승리!

투쟁속보

총파업7일차

2021년 9월 8일 수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욱

의료원 고원의 발의 불합니법다노동행위

이대로 일하다가 죽을 것 같아 살기 위해, 최소한의 대우를 보장받기 위해 시작된 파업. 의료원이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고 직원들을 돈 버는 기계로만 여겨 시작된 이번 파업.

파업 7일 차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에도 의료원은 직원들을 호소는 외면한 채, 불법노동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노동조합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충분히 예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온전히 직원들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의료원의 태도는 2020년 의사 파업 때 의사들에게 보여줬던 집행부의 결단과는 확연하게 차이는 대응 방향은 의료원이 결국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의료원은 의사 파업이 시작됐을 때 환자를 줄이고 직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의사 파업을 지지해달라는 호소까지 했다. 그러나 지금 직원들의 파업을 대하는 의료원은 어떠한가?

근로기준법 위반, 근무형태 변경 및 장시간 근무, 직종 구분 없이 간호사 병동 지원

필수유지업무부서인 수술실, 마취과, 응급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무균병동, 혈액종양내과 병동 등의 수간호사들이 파업으로 부족한 병동에 지원을 나갔으며 이들은 연속 근무로 인해 24시간도 모자라 바로 오전에 데이근무를 시작했다. 1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위반했고, 교대 근무자에게 12시간의 휴게를 보장해야 하는 단체협약도 위반했다.

한편, 병동 지원 인력 중 타 직종 부서의 간호 처지 지원사례가 확인되었다. 병동에서 고객센터 비스팀, 감염관리실등 행정직으로 편입된 간호사는 이미 행정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였던 이유만으로 병동으로 지원 가고 있다.

실명제로 자유로운 의견을 막더니 이제는 글까지 삭제하는 고대의료원

지난 7일, 직원포탈에 올린 직원들의 글이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 이전에는 익명으로 작성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의견을 내는 공간이었던 반면 실명으로 전환된 지금은 아무런 글도 올라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김영훈 의무부총장의 ‘직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 한 교직원 답변을 바라는 글을 게시했으며, ‘파업이유서’라는 제목의 글 또한 일괄 삭제됐다. 이는 과연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료원의 이같은 탄압은 강함의 표현이 아닌 위기의 반증이다.

우리에 대한 탄압은 의료원이 수세에 몰려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다. 돈에 혈안이 되어있는 의료원이 ‘하루 23억의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겠는가. 갈수록 늘어나는 파업대오와 우리의 가열찬 투쟁, 고려대의료원 투쟁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은 의료원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의료원이 무리하게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총파업을 중단시키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월 9일(목) 안암병원 로비로 모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버티는 힘이 이긴다!

총력 투쟁 일정을 공지합니다.

전 조합원 및 파업대오는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월 9일, 고대의료원 현장 실태 증언대회 참가

- 전 파업대오는 오전 11시 안암병원 로비로 집결하여 강력한 파업투쟁을 전개합니다.
- 휴가 조합원 및 근무 전후 조합원은 로비로 집결하여 파업투쟁을 지원합니다.
- 이번 집회는 현장실태 증언대회입니다. 비조합원 및 비정규직 등 고대의료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9월 13일, 고대의료원 현장실태 고발 기자회견 참가

- 안암병원 파업대오는 11시 안암병원 로비로 집결합니다.
- 전 조합원은 언론 기사 발행 시 해당 기사를 찾아 댓글 달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3. 9월 16일, 보건의료노조 집중 결의대회 참가

- 전 파업대오는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하는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4. 직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응원지지 댓글 달기

- 교직원 포탈에 올린 교직원 글에 응원과 지지 댓글을 달아줍니다.

파업 5일 차 이모저모



▲온라인 출정식(좌 니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용준 조직부장, 노재욱 지부장) ▲오늘도 변함없는 안암셀프투쟁